

LOCAL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출생아 증가’ 화순, 인구정책 빛났다

여수, 관광객 맞이 준비 돌입 10월 26일까지 종합대책 운영

여수시는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3월부터 10월까지 관광종합대책반을 운영하고 관광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14개 분야를 밀착 대응한다고 3일 밝혔다.

관광종합대책반은 관광지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상황반 △관광 불편 △교통 △물가 △식품 △숙박 △위생 등 14개 부서 70여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관광객 불편요소 손잡히는 바가지요금, 불친절, 호객 행위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음식·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운영 규정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실전 캠페인과 친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항일암, 오동도 등 혼잡이 잦은 관광지 부근에서는 교통지도를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관광안내소를 통한 교통편, 숙박, 관광지 맞춤 안내로 관광객 만족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여수 이미지를 새기겠다”며 “접수된 불편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관광 만족도를 제고해 1300만 관광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담양, 농산물 스튜디오 운영 담빛농업관서 홍보사진 촬영

담양군은 고품질 담양농산물 이미지 제공과 농업인 경영비 절감을 위해 담빛농업관 2층에 농산물 촬영 스튜디오(50㎡)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담양군 농산물 촬영 스튜디오는 카메라, 포토 부스, 조명 등 사진 촬영 장비를 갖춰 고품질의 홍보사진을 촬영할 기회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담양군 농업인 또는 담양에서 생산된 농산물·가공품을 홍보하려는 자로, 예약된 날짜에 신분증과 촬영할 농산품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스튜디오 이용은 군민은 누구나 담양군농업기술센터(061-380-0122·0123)로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농산물 촬영 스튜디오 운영을 시작해 죽순, 떡갈미, 백향과 등 담양의 농특산물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스튜디오가 청정 담양의 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해 군민 소득이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wnews@

군, 지난해 255명 출생...전년 대비 20%↑ 구북구 군수 “출산 장려·경제 부담 줄여”

화순군의 만원임대주택, 24시 어린이집 운영 등 인구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3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5명을 기록해 지난 2023년(212명)보다 20%(43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의 합계출산율이 1.06명에서 1.03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화순군의 2023년 합계출산율이 0.89명으로 전남도의 0.97명보다 낮았지만 지

난해에는 화순군의 합계출산율이 1.06명으로 증가하며 전남의 1.03명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사회적 인구 이동에도 큰 변화를 이끌었다.

2023년에는 270명이 감소한 순이동이 2024년에는 24명으로 90%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 전남 최고 수준의

결혼장려금 지급, 전입장려금 지급, 천원 보육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2024년 입주자 총 200세대 중 110세대는 화순군 거주자였으며, 나머지 90세대 124명은 타 지역에서 이주한 청년이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화순군에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수당은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며 총 432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모와 아동이 전남도와 타 시·도로 전출하지 않을 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군은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장려금(부부당 1000만원, 5회 분할),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총 400호), 출산양육지원금(첫째·둘째 아 230만원, 셋째 680만원, 넷째 이상 1150만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출생아 건강관리비 20만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등을 지원해 왔다.

화순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계속 거주하면 결혼장려금 1000만원을 받고, 더불어 출생기본수당이 더해진 출

산·양육 지원금으로 첫째~셋째 아들은 총 9000만~9640만원, 넷째 이상부터는 총 1억100여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18세까지 중단없이 수령할 수 있다.

군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 지역사회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북구 군수는 “화순의 다양한 정책이 출생과 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부터 지급되는 출생기본수당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우승희 영암군수, 고향사랑 세액공제 상향 건의

이학영 국회부의장 면담 제도 제안·사용처 확대 요청

우승희 군수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상향을 제안했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우승희 군수는 최근 국회를 찾아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면담하고, 고향사랑기부금 1조원 조기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세액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고, 2023~2024년 전국 지자체가 모금한 기부금은 1530억원 규모다.

우 군수는 이 부의장에게 “기부금 1조원 달성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법으로 ‘세액공제 확대’,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최고 10만원 한도를 3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승희 군수는 최근 국회를 찾아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면담하고, 고향사랑기부금 1조원 조기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세액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그 근거로 10만원 기부자가 83.9%(2023년), 91.7%(2024년)인 통계를 들며 세액공제액까지 기부가 이뤄지는 현실을 알렸다.

나아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행안부의 역할을 관리·감독에서 지원·조정으로 바꾸고, 지

자체의 독자적 제도 운영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을 쓸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보리 증진’ 법 규정 항목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등도 포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영암=한창규 기자 hck1342@gwangnam.co.kr

장성, 고향사랑 숲길 조성사업 지정기부금 모금

장성군이 향우들과 장성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숲길을 조성하는 ‘고향사랑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성지역 내 녹지가 필요한 곳에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심고 기부하며 주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선사

함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에도 일조한다. 국내 최대규모 인공조림지로 알려진 죽령산 편백숲을 보유하고 있는 장성군의 지역적 특장에도 부합한다.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를 선택하고 검색창에 ‘장성’ 또는 ‘숲길’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방법 및 조건은 기존 고향사랑기부제와 같다.

장성군은 올해 말까지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녹지 조성시 필요한 정소를 선정해 2026년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한중 군수는 “제2의 죽령산 숲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행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광양매화축제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할인권 30만장 배포...내달 6일까지 상품 이용 가능

광양시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광양매화축제 방문객들의 숙박을 위해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활용을 추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관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30만장의 할인가가 배포된다.

숙박 할인가는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2만원 이상 7만원 미만 숙박상품에 2만원, 7만원 이상에는 3만원이 지원된다. 할인가는 임실일 기준 4월 6일까지의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당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광양을 여행하고자 하는 이들은 페스타에 참여하는 숙박업체 목록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금액에 맞는 할인

권을 내려받고 예약하면 된다. 숙박할인권 관련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이번 매화축제는 세계적인 폭 기고 싶은 광양매화마을의 봄 풍경을 배경으로 섬진강 요트 승선, 열기구 체험, 매들이랜드 체험존 등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안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매들이 굿즈 판매도 준비해 관광객을 맞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광양매화축제는 7일부터 10일간 광양매화마을에서 개최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 풍경을 뽐내며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이곳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통통 튀는 이색 콘텐츠로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